

2020년 교회 표어

#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솟아나는 원천

| 사도신경

| 찬 송 502장

| 기 도

| 성경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 ~ 13절

-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씩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뻐함이 없었느니라
-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  
    하기를 배웠노니
-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 13 내게 능력이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삶 나누기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변화와 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돌이켜 보며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 말씀나누기

우리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원하는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처하면서 우울하고 한숨쉬며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지금 온인류  
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  
지 않는 인생 속에서 답답하고 한숨쉬며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고를 치루면서 빌립보교인들에게 서신  
을 보내는 사도바울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고 온힘 다해 복음을 전하던 사도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햇빛이 들어오  
지 않는 캄캄한 동굴 같은 곳, 사방에 쥐가 끓고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며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이 자행되어도 호소할 길이 없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의 대주제가 <기쁨>입니다.

풍성해도 영혼이 타락하지 않고 비천한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솟아나게 하는 원천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상황이나 환경적 산물에 가치를 두지  
않을 때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중요하게 여  
깁니다. 생존자체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는 길을 구합니다. 자신의 자리  
와 물질과 같은 것에서 자유합니다. 있고 없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족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스테반처럼 돌  
맹이가 날라오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평안히 기쁨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지금, 여기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동안 솟아납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감옥에서 벗어날까 하며 그 자리를 불평하고 원망하며 소일하기 보다 그 자리를 궁전처럼 즐기며 누립니다. 감옥 속에서는 누릴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사도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마케도냐에서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며 소명을 받아 빌립 보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귀신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 내준 것 때문에 여종이 점을 치는 것으로 이윤을 얻던 이들의 고발로 바울과 실라는 옥고를 치룹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바로 지금 여기를 향유합니다. 한밤 중에 일어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행16) 그곳은 감옥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바울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한 가지 은혜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맘껏 누립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을 은혜로 채우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셋째,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솟아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정하고 계획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끄시면서 그 사람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요셉 모세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와 사도바울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임을 믿으며 기뻐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솟아납니다.**

우리는 창조신앙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과 자신을 가로막는 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지

금의 악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정의를 이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다스리신다는 부활신앙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라는 말씀과 같이 내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이는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기쁨의 능력이요 바울의 능력의 원천이 되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솟아나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신 삶을 향유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십시오. 생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불안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말씀 나눔**

1. 이번 공과에서 능력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마음가짐 네 가지에 대해 요약해 보시고, 어느 것이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 이번 공과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대해 무엇이라고 위로 격려 그리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가요?
3.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에 부딪친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나눈 후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